

소상공인 우수상품 라이브쇼핑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주시·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유공자 표창·장학금 전달식 등 진행

전주시, 10월 6~27일 매주 수요일 밤 8시 '네이버×전북전주 특별 기획전' 진행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주시가 10월 한 달 간 라이브방송을 통해 소상공인의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장을 마련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양성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시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네이버×전북전주 특별 기획전'을 연다. 이 기획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소상공인들에게 네이버 라이브쇼핑 플랫폼을 통해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게 취지다.

지난달 네이버와 전북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및 지역 디지털커머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는 다음 달 6일 '전주 소상공인 로컬맛집 밀키트'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네이버 라이브쇼핑 전속 쇼호스트 팀인 네벤저스와 함께 쇼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3~5일 디지털농부의 잡곡, 한스푸드의 임실치즈핫도그, 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의 닭가슴살 등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시범 판매했다.



전주시가 10월 한 달 간 라이브방송을 통해 소상공인의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활용 지원교육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도 주력한다.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활용 지원교육의 경우 ▲온라인 상점 개설교육(15명, 2기수) ▲온라인 라이브방송 제작 교육(15명, 4기수) ▲1인셀러, 쇼호스트 교육(10명, 1기수)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상점 개설교육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상점 개설과 라이브 방송을 위한 사전 준비 교육 등이 제공된다. 온라인 라이브방송 제작교육에서는 라이브커머스 경험은 있으나 전문성이 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품판매 운영교육, 방송진행, 라이브방송 제작 송출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1인셀러, 쇼호스트 교육은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다음 달 1일 송광재에서 공개오디션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스토어 상세페이지 개발 지원, 제품컷 촬영 지원, 라이브방송 송출 지원 등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교육 및 콘텐츠 지원사업 참여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소상공인 확인 및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ca.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63-281-4172)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거점공간도 내실 있게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노창욱)는 28일 시청 강당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인원만 참석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활동에 헌신한 시민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또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준비한 라면 1000박스와 쌀 122포 전달식도 이어졌다. 이날 전달된 라면과 쌀은 지역 내 10개 장애인단체, 100가정에 후원될 예정이다.

노창욱 총연합회장은 "장애인으로서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모두 함께 노력해 진정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전주시와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8일 시청 강당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촘촘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취업 취약계층 122명에 공공일자리 제공

전주시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다음 달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취업 취약계층 122명을 대상으로 2021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DB 구축사업 ▲도서관 자료실 활성화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환경 정비 사업 등 총 54개 사업으로 운영된다.

근무 시간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이다. 임금은 시급 8720원과 간식비 5000원이 제공되며, 주·월차와 공휴일 유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다. 실직, 휴·폐업 등을 겪은 취업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됐으며, 실업급여 수

급자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22명을 채용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103명이 늘어난 총 583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올 상반기 방역일자리사업으로 145명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426명을 채용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돕는 데 힘써왔다.

/김윤상기자

'전주 먹거리 시민 김치학교' 비대면 운영

전주농기센터, 10월 23~30일 김장 전 과정 교육 진행

맛의 고장 전주에서 김치의 원재료 손질에서부터 배추 절이기, 양념물하기 등 김장의 전 과정을 알려주는 교육이 마련됐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다음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주 먹거리 시민 김치학교'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김치학교는 최근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로컬푸드를 이용한 국내산 김치를 활성화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김치의 역사와 효능 ▲

김치를 건강하게 먹는 법 ▲다양한 김치의 세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 교육이나 체험들이 이미 절여진 배추에 완성된 양념을 바르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 교육은 김치의 원재료 손질부터 절이기, 양념 배합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진 영상 등으로 참여자들이 실제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치 주재료와 파, 양파, 당근, 마늘, 생강 등 양념용 채소는 교육 하루 전날 전주푸드직매장에서 수령

할 수 있으며, 재료비는 회차별로 5000원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전주시 먹거리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6735)로 신청하면 된다.

황권주 소장은 "김치는 우리 전통 음식 중에서도 장류와 함께 가장 훌륭한 전통 발효음식이지만 여러 이유로 수입산에 대한 의존이 늘어가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개최 예정인 김장문화축제와도 연계해 건강한 국내산 김치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가을철 악취 주범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나서

전주시가 가을철 악취를 발생시키고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채취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은행나무가 있는 37개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작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해보다 은행나무 열매 채취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시는 우선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고 상가가 밀집한 노선부터 작업을 활용해 집중 채취에 나서기로 했다. 골사

기에 장착한 진동수확기를 활용해 나무에 진동을 줘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나무에 가는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인력과 채취 시간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장비 진입이 어렵고 암그루가 적은 노선의 경우 기간제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수작업으로 열매를 채취하기로 했다.

시는 아직 은행나무 열매가 덜 여물어 모든 열매를 채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음 달 하순경 나머지 노선을 대상으로 2차 작업을 할 계획이다.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채취된 열매

는 전량 폐기처분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압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산동 당산로 일대 압나무 75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식재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운고율로 일대 119그루를 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에는 전체 가로수의 약 19%인 총 12만600그루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다. 은행나무는 대기 정화능력이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해 가로수 수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